

중국 의료시장의 이해와 진출 전략

문 용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Abstract>

Review of China Medical Industry

Moon Yong

Department of Health Administration, Namseou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basically review of the China Medical Industry. China affiliate World Trade Organization(WTO) in 2001.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WTO, China have to open the medical industry from 2003. To do this, the contents of this article is China medical industry, investment circumstance of capital, medical market-open plan of outbound-base, and national medical market policy in now and future.

Key Words : hina, Medical Industry, Public Health Service

* 이 논문은 2005년 남서울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 : 문용(041-580-2332, yongmoon@nsu.ac.kr)

I. 중국의료시장의 이해

1. 중국 의료 시장 개황

중국의 의료산업은 제약업을 포함하여 중국 전반 시장에서 성장 가능성이 아주 큰 분야 중 하나이다. 중국 의료산업은 과거 오랜 기간 동안 국가 차원의 복지사업의 일환이었으며 1980년대 전까지는 별다른 발전 양상을 보이지 못했다. 8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중국 정부의 개혁개방 정책에 힘입어 중국 의료시장은 고속 성장을 하게 되었으며 20여 년 간 보건의료 총비용 성장률이 20%에 달하는 등 지금도 계속 증가일로에 있다.

2001년 말 중국 관련 부서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의료산업 관계 기관의 총수는 33만개이며, 그 중 현(한국 군에 상당) 및 현급 이상 병원 16,781개, 의료원 48,600개, 외래 진찰실 3,716개, 의무실 244,300개, 요양원 461개에 달한다. 또한 병상 보유 수는 320만개, 의료 관련 종사자 수는 558만 명에 달했다. 전체 병/의원 중 대부분이 비영리성 국유 병/의원이다.

중국 위생부(한국의 보사부에 해당됨) 통계 자료에 따르면, 중국 의료산업시장의 수입 규모는 1999년 약 62조원, 2000년 71조원, 2002년 약 82조원이다. 이러한 추세에 따르면 연간 의료시장의 성장속도가 14%인 점을 감안할 때, 2005년에는 중국 의료산업의 총 시장 규모는 121조원으로 예상된다.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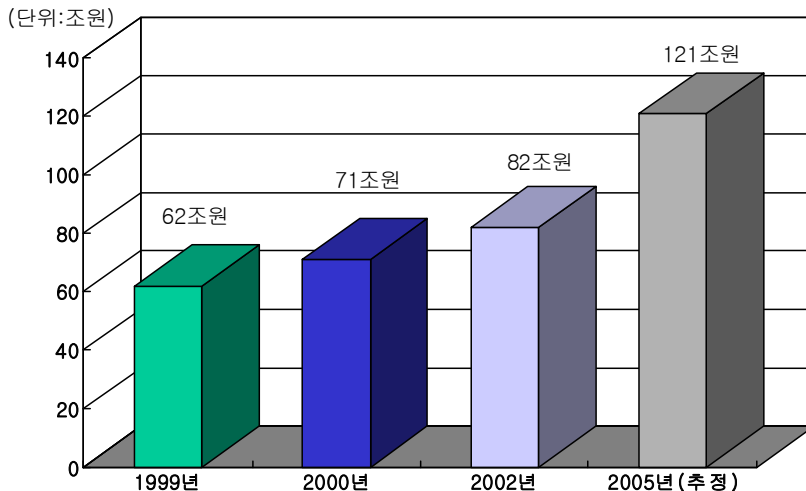


그림 1. 중국 의료산업시장의 수입규모

현재 중국의 매년 1인당 평균 의료비 지출은 50달러 이하이다. 매년 1인당 평균 의료비 지출을 보면, 미국 4,080달러, 일본 2,379달러, 독일 2,339달러, 브라질 359달러, 폴란드 242달러, 러시아 130달러, 태국 112달러이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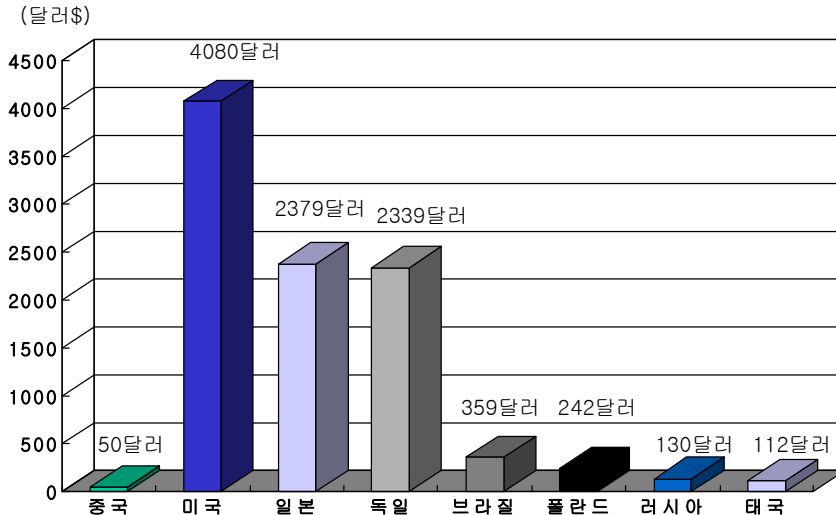


그림 2. 국가별 국민 1인당 연간 의료비 지출(2000년도)

위의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독일과 미국은 각각 중국의 70배, 130배이다(참고로 한국의 경우, 2001년 국민 1인당 연간 의료비 지출은 532달러임). 미국의 의료비 지출은 GDP의 14%를 차지하는 반면, 중국은 2000년도를 예로 5.35% 수준이다. 중국의 2001년 GDP를 1,341조원으로 계산할 때 의료비 지출이 10% 정도 차지한다고 가정해도 무려 134조원이 되며 그러므로 2025년에는 의료 시장 규모가 9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GDP 대비 1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중국은 영리성 병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1인당 평균 의료비 지출도 매우 낮으며, 의료 비용이 전체 GDP에 차지하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으로 볼 때, 중국의 의료 시장은 국제적으로 매우 매력적인 성장 가능한 최대 시장일 수밖에 없다.

일면, 중국의 고급 의료 시장을 볼 때, 13억 인구를 자랑하는 중국은 월소득 80-160만원의 중상층은 약 2억 명, 20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부유층은 약 8,000만 명, 그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초부유층이라 할 수 있는 인구는 약 2,000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의 실제 구매력이 우리나라보다 3-5배 높게 평가되고 있으므로, 중국이 가진 고급 의료 시장의 잠재력은

아주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내 부유층의 증가에 따라 동반상승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고급 의료비 지출이다. 이는 전체 중국 의료비 증가와 함께 고급 의료에 대한 수요도 한 층 증가시켰다.

예를 들면, 2001년도 베이징 내 고급의료서비스 시장의 규모는 1,530억원이었으며 오는 2006년도에는 3,48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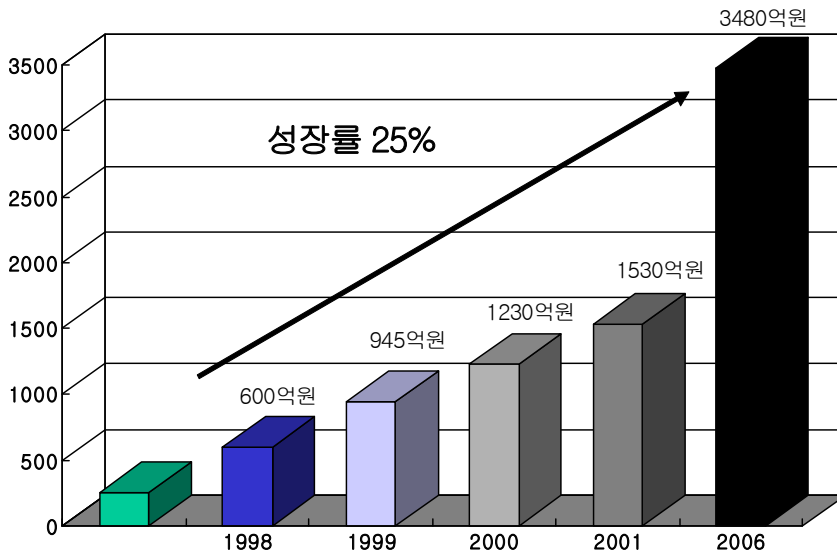


그림 3. 중국 베이징 내 고급의료 서비스 시장규모

위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중국 의료산업 분야의 시장 발전 가능성은 아주 크다고 말 할 수 있다. 매년 약 천억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 자본의 투입 필요성은 매우 절실한 것이다. 특히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또한 경제의 고속 성장, 인구 노령화, 농촌 도시화 등에 의하여 중국 의료시장은 국내외 자본시장의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WTO와 협의에서, 중국이 개방을 허용한 5개 의약 업종 중 다섯 번째 사항은 바로 2003년부터 중국의 의료시장을 개방하는 것이다. 중국 위생부와 중국 경제무역위원회에서 관련 정책을 공포하고, 구체적인 실행은 기본적으로 각 지방 정부 스스로 주도한다. 따라서 지방 정부의 각종 이익과 맞물린 여러 가지 형식의 투자(외자와 민영 기구를 포함)가 이미 의료 분야에 이루어지고 있다. 동 업종 간의 경쟁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 의료 시장 역시 제약업의 대외개방과 마찬가지로 개방이 될 것이며, 결국 중국내 기업은

머지 않아 곧 그 고유 시장과 경쟁우위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국민들은 서비스와 환경이 좋은 외국자본병원이나 국외(미국, 싱가포르 등) 고급병원을 찾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일부에서는 중국 국내 의료서비스기관이 만약 시급한 조치를 하지 못한다면 매우 큰 생존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중국 국내자본의 의료시장 진입 속도는 여전히 느린 실정이다. 이에 반해, 많은 외국 자본 및 병원들은 이 거대한 시장으로의 진입 속도를 더욱 가속화 하고 있고 또한 이를 거점으로 일부 고급의료수요는 자국으로 역수입하고 있다.

춘추전국 시대를 방불케 하는 현재 및 미래의 거대한 중국 의료 시장을 놓고, 중국 자체 자본 및 국제 자본은 직접진출과 환자유치등 각종 경로를 통하여, 중국 의료 시장 및 고급의료시장의 점유율 확보에 특별히 고안하고 있다.

2. 중국자본의 의료시장 진출

중국 중화병원관리학회의 조사 통계에 의하면, 2002년 9월까지 중국 민간운영병원의 수는 1,477개, 일정 규모를 갖춘 병원은 400여 개가 된다. 병원 구성으로 볼 때, 개인 진료소로부터 시작하여 일정 규모로 성장한 병원, 일부 기업과 개인이 합자 설립한 병원, 자금 조달을 통한 자체경영 또는 주식병원, 외국 자금을 유입하여 설립한 실질적인 합자합작병원 등이 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이러한 민간운영병원의 수는 전체 병/의원의 수에 비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민간운영병원 종사자 수 역시 중국 전체 의료 종사자 수의 2%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2000년 2월, 중국 국무원체제개혁위원회를 비롯한 중국 정부 주요 부처에서는 공동으로 《도시 의약 체제개혁의 지도 의견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의료개혁 관련 구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그리고 선후하여 13개의 후속 공문을 발표하였는데, 도시 병/의원에 대한 유형별 관리 방법, 의약 수입 및 지출 유형별 관리 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의 병/의원은 크게 영리성과 비영리성 2가지로 대별된다. 중국 국가위생부 관계 기관의 한 공직자는 주간지 《전망》에서, 중국의 기존 6만여 비영리성 국유 병원은 향후 반수 정도는 영리성 병원으로 체제 바꿈을 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병/의원에 대한 개혁의 초점은 곧 병원 자산권에 대한 개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 중국위생부장관 장문강은 이러한 중국 정부의 의료 시장 개혁 관련 구상에 대해 ‘새로운 형세에 맞는 의료 시장 개혁의 돌파구를 마련’한 것으로 높이 평가한 바 있다.

중국 정부는 의료시장 개혁과 관련하여 정책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도시 의료기구의 유형별 관리 실시 관련 의견》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즉, ‘합리적으로 중앙과 지방의 직권을 분리해야 하며, 병/의원의 행정적 종속관계와 소유제의 한계를 넘어 전반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고, 병/의원에 대한 유형별 관리 과정에 있어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역동적인 의료 관리 시스템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병원관리위원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의 관리 형식을 구축하여 병원으로 하여금 진정으로 독립된 운영 실체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다’.

중국 정부가 이처럼 민간운영 차원의 비영리성 및 영리성 병원 설립을 적극 추진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도가 감지된다.

1) 의료 시장에 대한 투자자 다원화를 형성시키고, 경쟁메커니즘을 도입하는 것이다.

현재 중국의 민간운영 병/의원이 자산, 규모 및 서비스능력 등 제 측면에서 아직 국립 병/의원의 경쟁 상대가 되지 못 하는 실정에서, 의료 시장의 진정한 의미의 대등 경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립 병/의원에 대한 서비스 수준, 질, 의식 및 효율 향상에 자극을 주지 못하고 있다.

2) 각종 차원의 의료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중국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전반적인 요구도 향상되었으며, 개인 소비 능력에 따른 각자 다른 차원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일면, 중국의 적극적인 대외 개방 정책 추진으로 인해 정치, 경제, 문화 등 제 분야와 연관되어 중국을 방문 또는 상주하는 외국인 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보편적으로 의료 서비스 질이 낮고 차별화 되지 않는 중국 의료 체계로는 각종 차원의 의료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이다.

3) 사회 자본을 흡수하여 병/의원에 대한 효과적인 자금 배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병/의원에 대한 유형별 관리 시스템은 사회 각종 자금의 병/의원 유입에 유리하며, 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병/의원에 대한 자금 투입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따라서 경쟁력이 있고 시장성이 확실한 병/의원 설립에 있어, 정부 차원의 설립은 가급적 자제하고, 영리성 병/의원이나 비영리성 민간 운영 병/의원들이 적극 나서게 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재력을 집중하여 정부 차원에서 나서야만 하고 또 정부 차원에서만 원만하게 유지될 수 있는 일부 병/의원 설립에 주력하자는 것이다.

4) 중국 의료 시장 체제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병/의원에 대한 유형별 관리를 통해, 산재해 있는 사회 자금이 비영리 병/의원 및 영리성 병/의원 설립에 유입되도록 격려함으로써, 의료 시장의 원활한 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영리성 병/의원 및 민간 운영의 비영리성 병/의원에 대한 끈임없는 연구를 통해 중국 의료 시장의 구조조정과 제도적 혁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민간 운영의 비영리성 병/의원 및 영리성 병/의원 설립을 격려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일련의 격려 정책을 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설립 규제 완화.

영업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병/의원 설립 규제를 적당히 완화시켜, 지역 사회의 병/의원 설립을 기획할 때, 민간 운영의 비영리성 병/의원 및 영리성 병/의원이 일정 비율 차지할 수 있도록 한다.

2) 세수 우대 정책 실시.

영리성 병/의원이 얻는 소득에 대해,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 재투자 된 경우, 영업허가 일로부터 3년 동안 세수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수 우대 내역은 크게 다음과 같다. 취득한 소득에 대한 영업세 면제, 자체 생산 및 판매한 의약품에 대한 증식세 면제, 자체 사용 건물, 토지, 차량, 선박에 대한 부동산세와 차량 및 선박 이용세 면제, 등이다. 3년 후부터는 정상 세수한다.

3) 의료서비스 가격 자체 책정 허용.

중국 국가계획위원회가 2004년 7월 4일에 발표한 《국가계획위원회 및 국무원 관련 부문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가격 규정 목록》에는 더 이상 영리성 병/의원의 의료 서비스 관련 가격 규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영리성 병/의원의 서비스 가격은 시장 조정 가격에 따라 자체적으로 책정한다.

4) 병/의원 과잉 설립 지역에 대한 투자 규제 완화.

병/의원의 수가 상대적으로 밀집된 지역에 대해, 투자를 허용하여 인수 또는 합병하는 형태로 영리성 병/의원 및 민간 운영의 비영리성 병/의원 설립을 격려한다.

5) 차별 없는 관리 시스템 도입.

병/의원 및 의료 종사자 영업 규칙, 병/의원 심사, 의료 종사자 직급 및 진급 관련 규정,

의료보험 적용 병원 지정 여부, 프로젝트 입찰 등 제 방면에 있어, 비영리성 병/의원과 영리성 병/의원에 대한 관리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중국 정부의 이와 같은 정책적 지지에 힘입어, 중국 국내 자본은 현 시기를 민간 운영의 비영리성 병/의원 및 영리성 병/의원 설립의 최적기로 판단하고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 의료 서비스 시장화는 이미 기정 사실이 되었다. 중국 국내 자본의 의료시장 진출은 크게 병원 신축, 기존의 병/의원에 대한 인수 합병 등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

1) 병원 신축

신축 병/의원의 설립 추세를 보면, 주로 전문병원이 주를 이루고, 서비스 및 가격에 있어 출발점부터 고차원으로 시작되며, 종합병원의 경우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축 병/의원 설립을 위해 대대적인 시장조사 및 분석을 하고, 대내외적으로 적극적인 홍보작업을 펼치며, 우수한 인재 확보, 자금력 확보, 자금 회수 기간을 상대적으로 길게 잡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2) 인수 합병

운영 실적이 부진한 일부 시/현급 국공립병원, 일정 규모를 갖춘 기업체 소속 병원, 민간 전문의원 등에 대한 인수 합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의 건물, 인력, 고객, 지명도 등을 모두 활용할 수 있어 초기 자본 투입이 적고 위험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중국 국공립병원은 구조적으로 구조조정이 자유롭지 못해 복잡한 조직 구조 및 과잉 인력, 비효율적인 운영, 서비스 부진, 등의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순이익은 대략 20% 정도로 보고 있다. 따라서 국공립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운영 방침 설정이 자유롭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민간 운영의 비영리성 병/의원 및 영리성 병/의원의 연간 순이익율은 그 전망이 상당히 밝은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의료산업 관련 전문가들은 인수 합병의 경우를 예로 들어, 가령 150억원으로 35개의 시/현급 병원을 인수 합병한다고 가정할 때, 연간 총 수입이 150억원 정도 되며, 중국 의료 시장 평균 신장률에 비추어 볼 때, 3년간 총수입은 약 525억원, 순이익은 약 105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총 수입 및 순이익이 일정 규모로 성장한 후에는 용자 또는 주식시장 상장 등을 고려할 수 있는 견실한 기반을 닦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 정부의 재정력이 부족한 실정에서 중국 민간자본의 중국의료시장 진출은 불가피하며, 이는 중국 의료 개혁 중 중요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 최근 몇 년간 중국 정부의 일관된 의료 개방 개혁 정책에 힘입어 일부 민간운영의 병/의원들이 속속 설립되고 있

으며 수백 억의 자산 규모를 갖춘 병/의원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중국 연해 지역 및 일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빠른 발전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무한아주심혈관병원, 동관동화병원, 등이다. 또한 그룹화 된 민간병원 자산운영 형식도 나타나고 있다. 현 시점에서는 중국 국립 병/의원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향후 발전 추세로 볼 때, 민간 운영의 병/의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중국 절강성 Ningpo시의 썬썬그룹에서 독립적으로 500억을 투자하여 설립한 민쩌우병원은 이러한 추세의 시작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중국 국영 병/의원에만 중국 의료보험이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상황에서 외국의료보험기구의 중국 진출은 이 과정을 더욱더 가속화 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3. 국제자본의 중국 의료시장 진출

□ 법적 지지

중국 정부는 의료 서비스 체제 개혁 및 관련 법령을 발표하여 중국 국내자본의 의료시장 진출을 격려하는 동시에, 국제자본의 중국 의료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적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2000년 5월에 개정 발표한 ‘중외 합자/합작 의료기구 관리 잠정안’에는 개정 전(1989년, 1997년)의 핵심 내용과 비교할 때, 보다 구체적이고 관련 조건 및 규제가 상당히 완화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중외 합자/합작 병원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은 2000만 위안이며, 외국 투자자와 중국 합자/합작 파트너의 투자 비율을 각각 70% 이하, 30% 이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주주 권리에 있어 외국 투자자가 지배권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설립 자격 조건에 있어서도, 중외 합자/합작 쌍방 모두 반드시 의료 관련 투자 및 관리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경험이 있어도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요구 조건에 부응할 수 있으면 곧 설립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즉, 국제 선진 의료 관리 경험과 관리 및 서비스 모델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국제 선진 수준의 의학기술과 설비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중국 현지 의료 서비스 능력, 의료 기술, 자금 및 의료 시설 등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등이다.

외국인 의사의 의료활동 조건에 있어, 외국의 의사자격증(공증 필요) 소지자는 우선 현지 에 의료기관(합자/합작병원 포함)에 채용되어야 한다. 중국 현지 관계 기관 소정의 시험을 거쳐 등록 후, ‘외국의사 단기행의허가증(外國醫師 短期行醫許可證)’을 취득하여야 하며, 유효기

간은 1년이다(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장 희망 시, 동일한 절차를 통하여 다시 등록하여야 함).

□ 외국자본의 중국 의료시장 진출 가속화

중국은 WTO 가입과 함께 2003년부터 의료시장 개방을 약속하면서 외국자본의 중국 의료시장 진출 속도가 더욱 빨라졌으며, 미국, 캐나다, 일본, 한국, 호주,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나라와 지역의 개인 및 기관들이 중국 의료시장 진출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중외 합자/합작 병원의 수는 200여 개이며, 주로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중국의 의료 서비스 수요, 특히 고급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면서 중외 합자/합작 병원 설립에 더욱더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중외 합자/합작병원 설립 초창기인 1990년대에는 환자의 90% 이상이 재 중국 외국인이었으며 중국 현지인 환자는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 중국의 지속적인 대외개방 정책 실시 및 중국 국민소득의 증가 등 요인으로 인해, 외국인 및 중국의 신흥 부유층(중국 13억 인구 중, 한화 20억 이상의 재산 보유 부유층은 약 8,000만명, 그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초부유층은 약 2,000만명으로 추산)이 날로 증가하면서 고급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가운데, 중국 현지인 환자의 비율이 30%에 육박하게 되었으며 매년 증가 일로에 있다.

현재 기설립 병원의 투자 및 병원 규모는 크지 않지만 선진화된 고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요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하나의 본원을 기점으로 중국 전역을 상대로 지사(분원)를 설립하는 등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개설 종목은 주로 안과, 치과, 성형, 등에 집중되고 있지만, 2008년 올림픽 개최 시점에 맞추어 베이징, 상하이 등 지에 대형 종합병원 및 의료산업단지 조성도 추진 중에 있다.

□ 대표사례

대표적인 중외 합자/합작 병원으로, 미국 자본이 투자된 베이징허무짜병원, 한국 자본이 투자된 베이징SK아이카병원, 대만 자본이 투자된 썬먼창경병원을 들 수 있다.

○ 베이징허무짜병원

베이징허무짜병원(United Family Hospitals & Clinics)은 중국의 중국과학원과 미국의 Chindex international, Inc.가 협력하여 설립한 중-미 합자/합작 병원이며 중국 베이징의 외국

공관, 외국인 및 고급 상업가 집중지인 초양구(朝陽區)에 위치해 있다.

1996년에 중국 정부의 인허가를 받았으며, 1997년에 정식 개원하였다. 병상 수는 50개이며 주요 진료 과목은 산부인과이다. 개원 초기에는 환자의 90% 이상이 외국인이었지만 현재 외국인 및 중국인 환자의 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중국 고소득층 환자의 비율도 점차 증가하여 현재 30%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비록 소규모 병원이지만 국제 선진 의료기술과 고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 최초의 중-미 합자/합작 병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정부가 '중외 합자/합작 의료기구 관리 잠정안'을 처음 공포한 것은 1997년도 중반인데 비해, 베이징허무짜병원 설립 인허가는 이 보다 일년 이상 빠른 1996년에 이미 획득하였다. 1989년에 중국 위생부와 당시 대외경제무역부에서 공동으로 '외국인, 화교 운영의 병의원 및 외국계 개인의 재 중국 의료활동'과 관련하여 몇 가지 규정을 발표한 바 있지만 중-외 지분비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으며, 당시 전반적인 정책 분위기 상 각각 50%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지분비율 책정 방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징허무짜병원은 지분비율을 중국 30%, 외국 70%로 책정하였는데, 이 병원이 당시 중국 정부의 중-외 합자/합작 의료기구 설립 관련 법령 개정 조짐을 조기에 파악하고 발 빠른 조치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베이징허무짜병원은 베이징을 기점으로 점차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02년에는 베이징 외곽에 있는 쑤이르샹광장(順義日祥廣場)에 베이징허무짜진료소를 개설하였으며 기존의 주 진료 종목 외에 치과 종목도 증설하였다. 2004년 말에는 상하이허무짜병원을 개설하였으며 광저우허무짜병원 개설도 눈앞에 두고 있다.

○ 베이징SK아이강병원

베이징SK아이강병원(SK HOSPITAL BEIJING)은 2003년에 설립된 한-중 합자/합작 병원으로, 한국 SK그룹 및 한국 5개 전문병원의 지분비율은 70%, 중국 위생부 국제교류/합작센터 및 중국 푸저우쑤쑤과기유한공사의 지분비율은 30%이다. 자본금은 2,000만 위안이며, 세계 500대 그룹에 속하는 국제적인 회사가 중국 의료시장에 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병원 위치는 베이징시 초우양구(朝陽區)에 있으며, 의사 수 약 30명, 직원 수 100여명, 병상 수 50개 정도의 소규모 종합병원이다. 병원 내에는 의료성형센터, 안과치료센터, 삼위체험센터, 국제의료센터, 의료미용센터, 치과치료센터, 아동건강센터, 중의명의센터 등이 개설되어 있다. 환자의 70~80%가 중국인이며, 개원 1년 만에 진료 2만 건을 돌파했다.

SK아이강병원은 관리 시스템에 있어 중국 최초로 고객회원제를 도입하여 고객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모든 고객은 무료로 SK건강회원이 될 수 있다.

SK아이강병원은 베이징을 하나의 시범병원으로 하고 향후 2010년까지 중국 전국 범위에서 20여 개의 분원을 개설하여 대규모 의료그룹을 조성할 목표를 세우고 있다.

SK아이강병원 설립을 위하여 한국SK는 중국 내 의료 분야에서 사업 경험이 풍부한 텡쯔젠회사(藤之健公司)를 기획 고문사로 선정하고, 각종 위험 요인에 대해 철저하게 검토하였으며 충분한 시장조사와 관련 법규에 대해 철저히 분석한 끝에, 중국 측 협력 파트너를 중국 위생부 국제 교류/합작 센터 및 수년간 SK와 협력 관계에 있는 푸쩌우쑤쑤공사로 선택하게 되었다.

외국자본의 중국 의료시장 진출과 관련하여 중국 정부가 적극적인 지지 정책을 펴고 있는 것과 별개로, 중외 합자/합작 병원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에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설립 인허가 취득에서 정식 개원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SK아이강병원은 상대적으로 순조로운 진행을 보였으며 2년여 만에 정식 개원하게 되었다. 중국 측 파트너인 중국 위생부 국제 교류/합작 센터가 정부 직속 기관이라는 점으로 볼 때, 병원설립 인허가에서부터 정식 개원에 이르는 과정에 시행착오를 줄이고 각종 장애 요인을 극복하는 데 크게 기여했을 것이다. 또한 이 국제 교류/합작 센터가 중국내 900여 개의 병원과 각종 협력 협의가 되어있다는 점으로 볼 때, 향후 중국 내 분원 개설에도 유리한 조건을 제공해 줄 것으로 보인다.

○ 싸먼창경병원

싸먼창경병원은 중국-대만 합자/합작 설립 병원으로, 2005년 5월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 현재 건축 중에 있으며, 오는 2006년 12월에 개원 예정에 있다.

대만 투자 측은 대만의 '경영의 신'으로 주목 받고 있는 대만플라스틱회사 이사장 왕용칭(王永慶), 중국 측 투자 파트너는 싸먼하이창공용사업투자공사(廈門海滄公用事業投資公司)이다. 지분비율은 대만 측 70%, 중국 측 30%이다. 대만 측 총 투자액은 11억 위안이다.

병원 위치는 싸먼 의학단지 내에 있으며, 부지 총 면적은 70헥타르로, 크게 병원구, 양생촌 및 4000여명의 학생을 수용 가능한 간호기술전문대학구 등 3개 구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병원 건축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병원 내부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특히 각종 설명회, 인터넷 등 경로를 통해 중국 현지 병원 관련 인력을 대대적으로 모집하고 있다.

병상 수는 2,000개이고 진료 개설 중목은 42개 과이다. 개원하는 12월에는 우선 500 베드

로 하고, 2007년까지 점차 2,000 베드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만플라스틱회사 이사장 왕용칭(王永慶)은 1990년대 초반부터 줄곧 중국 진출을 모색해 왔다. 1996년 왕용칭은 중국 푸젠성 전력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화력발전소 건립을 허가 받았으며 1999년에 완공하였지만 중국 측이 경기가 예상했던 바와 다르다는 이유로 전력 매입 가격 관련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결국 투자는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 또, 중국의 2008년 올림픽유치 전략과 연관 지어, 왕용칭은 베이징시 정부로부터 왕용칭이 단독 투자하는 5,000 베드 규모의 대형 종합병원- 베이징창경병원 설립을 약속 받았다. 그러나 베이징시 기존 병원들의 강력한 반발과 중국 중앙 정부 당국의 심의 결과, 왕용칭에게 단독 투자가 아닌 중외 합자/합작 병원 설립을 권고하였으며, 왕용칭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 결국 무산 되고 말았다. 몇 번의 실패를 통해 왕용칭은 결국 단독투자의 생각을 버리고 중국 정부 정책에 따라 합자/합작 병원 설립을 결심하게 되었다.

왕용칭이 수차 예상치 못한 실패를 딛고 끝내 싸면창경병원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단독투자의 꿈을 접고 중외 합자/합작을 요구하는 중국 법과의 타협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왕용칭이 튼튼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중국 여러 분야 여러 지역에 끊임없이 우물을 파 본 결과라고 비유할 수 있다.

현재 왕용칭은 싸면 외에 중국 내륙 지역인 뤼양과 쟁저우에 각각 800 베드, 1000 베드 규모의 중외 합자/합작 형태의 종합병원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

II. 진출 전략

1. 중국 진출 방식

외국자본의 중국 진출 방식에 있어, 크게 원내원 방식, 기술제휴 방식, 중외 합자/합작 병원 설립 방식 등을 들 수 있다.

□ 원내원 방식

현존 중국 병원 내에 외국계 병원의 진료과를 개설하는 형태로, 소자본 및 간편한 절차를 거쳐 설립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대체로 중국 측 합자/ 합작 파트너 병원은 장소 제공,

보조 인력 공급, 설립 허가 등을 책임지고, 외국계 병원은 의료기기, 자금, 치료 등을 책임지며, 이익 분할을 포함해 철저하고 세부적인 계약서를 작성한다. 그러나 병원의 법적 명의를 중국 측에 있고 외국인 의사의 중국에서의 의술 활동도 중국 측 파트너의 초청이나 인가 없이는 수시로 중단될 우려가 있다. 결과적으로 주도권은 중국 측에 있으며 중국 내에서 중국 측 파트너와 마찰 발생 시, 대개는 외국계 병원 측의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 기술제휴 방식

외국의 병원 또는 의료기술 소유 기관 및 개인이 외국자본 100%의 투자회사를 설립한 후, 투자회사를 통해 중국의 협력 파트너 병원에 기술을 제공하고, 계약에 따른 지분 수익 및 용역료를 받는 방식이다. 기술제휴 방식으로 설립된 병원의 명의를 중국측에 있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외국 투자자에게 불리하거나 위협의 소지가 있지만, 투자회사를 통해 기술용역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만일의 경우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갖추게 되는 것이다.

□ 중외 합자/합작 병원 설립 방식

중국과 외국의 합작 기관 또는 개인이 일정 비율로 자본을 투자하여 설립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액은 2천만 위안 이상이어야 하며, 외국측 지분비율은 70% 이내, 중국측 지분비율은 3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외국측 투자자의 수익은 크게 지분 투자자로서의 수익, 의사 개인의 진료 수익, 주식시장 상장 시 주가차익 등이 있다. 중외 합자/합작 병원 설립 방식은, 투자 및 병원 규모 등에 제한이 있고, 허가 취득 소요 시간이 길다는 등 기타 진출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까다롭지만, 일단 허가를 취득하면 독립병원의 형태를 지니게 되며, 외국 투자자의 지분을 공식적으로 인정 받음으로써 병원에 대한 외국 투자자의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더욱이 외국측 지분비율이 70%까지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주주 권리에 있어 외국 투자자가 지배권을 가질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출발하여 중외 합자/합작 병원 설립 방식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중국측 파트너 및 지역 선정

병원 설립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면밀한 시장 조사 및 분석이 바탕되어야 하는 것

은 물론, 특히 능력있는 중국측 파트너를 잘 선택하여 각 단계의 허가를 무난하게 통과하는 것이 1차 과제일 것이다.

지역 선정에 있어, 외국 투자자들 대부분이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에 포커스로 두고 있어 이들 지역에는 거의 포화 상태에 가깝다. 허가 여부를 떠나 우선 신청 접수 자체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개발이 시급한 서부 지역 또는 의료서비스가 다소 낙후한 기타 지역을 선택하면 상대적으로 용이한 면이 있다. 그러나 병원 수익 및 향후 사업 확대 등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시작은 어렵지만 역시 대도시를 거점으로 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3. 병원 형태 및 규모

현재 중국 기 설립 중-외 합자/합작병원의 경우, 대체로 치과, 성형, 산부인과 등 전문병원과 치과, 성형, 산부인과 등 전문병원들이 제휴하여 설립한 종합병원으로 대별된다. 전자의 경우, 후자에 비해 전문병원으로서의 권위를 지키고 그에 따른 특권을 누릴 수는 있지만 다양한 환자 유치에는 불리하여 결국 수익 창출에 한계를 느끼게 된다.

따라서 처음에는 진료 종목을 한 두 가지로 시작했던 병원도 중국 현지의 복잡한 법적 허가 과정을 거치면서 차츰 진료 종목을 확대해 가는 경우가 많다. 최근 들어 처음 시작부터 각자 다른 종목의 외국계 전문병원들이 제휴하여 공동으로 종합병원을 설립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 경우, 자금 및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타 단독 진출 전문병원에 비해 병원 규모, 의료서비스 종목, 환자 유치, 병원 수익 등 제 방면에서 경쟁력을 갖게 된다.

4. 중국 현지 네트워크 구축

선진 의료기술, 첨단 의료장비, 합리적인 병원 경영 기법으로 자체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타 중-외 합자/합작병원을 포함한 중국 현지 유명 병원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역시 중국에서 탄탄한 발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전략이 될 것이다.

일례로, 2002년에 베이징국제의료중심이 주도하여 베이징 17개 유명 병원 및 중국은행 베이징분점과 공동으로 출시한 ‘사랑의 카드(愛心卡)’는 연회비 88위안, 수수료는 치료비의 15%가 되지만, 편리한 예약, 무현금 결제, 진료 가이드, 일부 종목 무료 서비스, 일부 종목

할인 서비스, 가맹 병원 범위 내에서 병원 선택 용의, 등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발행 즉시 고소득층의 좋은 호응을 받았다. 최초 발행 3만장이 3개월 내에 매진되었다. 현재 본 카드 가맹 병원은 중국 전역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가맹 병원의 수가 베이징의 17개 병원에서 현재 중-외 합자/합작병원을 포함해 100여개를 넘어섰으며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들어 중-외 합자/합작병원들도 자체 병원에 한한 회원제 실시를 넘어서, 기타 현지 병원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노력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중국 유수의 의과대학, 의료 관련 연구원과의 밀접한 교류를 통해 중국 현지 전문가 풀을 형성하고 중국 현지에서 필요한 인적 자원을 끊임없이 발굴하는 노력도 돋보인다.

5. 사업 확대

사업 확대와 관련하여, ‘중외 합자/합작 의료기구 관리 잠정안’에는 프랜차이징 같은 브랜치 설치는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중국 기 진출 중-외 합자/합작병원들은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에 우선 병원 설립을 시범 성공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 기타 지역에 새로운 병원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본원 대비 본원 또는 계열사이지만 법적으로는 독립법인의 형태이며, 설립 신청 및 인허가 과정은 본원 설립과 무관하게 각 지역 정부의 요구에 맞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한 지역을 거점으로 중국 전역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방식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이에 따른 인력 소모, 시간,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인적 자원, 장비 구매 등 운영 시스템 구축에 용이하며, ‘지역명 +브랜드명’(예: 베이징허무짜병원, 상하이허무짜병원 등)으로 각 지역의 병원명을 정함으로써 브랜드명에 의한 환자유치 효과도 크다는 등, 그룹의 전반적인 이익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Ⅲ. 맺음말

중국의 낙후된 의료 서비스체계에 대한 자국내 반성이 높아지면서 중국은 자체 의료 서비스 체계에 대해 다각도로 되는 개혁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동시에, 외국 자본을 도입하고 선

진화된 외국 의료 서비스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대외 의료시장 개방 정책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중국의 대외 의료시장 개방 속도는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을 포함한 국제자본의 중국 진출에 전례없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 의료시장은 분명히 매력적임에는 틀림 없다. 한국, 싱가포르, 대만, 홍콩 등 동양권 국가 및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등 서양권 국가들이 대거 중국 의료시장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그 투자 규모도 날로 커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중국 의료시장에서의 외국계 의료기관 간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중국은 현재로서는 낙후된 의료 서비스 체계를 인정하고 자국의 의료 발전을 위해 대외 개방 정책을 적극 추진하며, 외국의 선진 의료 기술을 대거 유입하고 있지만, 향후 자국의 이익에 유리한 의료 서비스 체계가 일정 수준으로 정비되고,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의 질이 향상된 후에는 도리어 국가 차원의 거대 자본을 배경으로 외국으로 역진출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된다. 이러한 시기는 머지않은 2008년 중국 올림픽 개최 이후가 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외국자본의 중국 의료시장 진출에 있어, 무한한 가능성에 힘입어 적극 투자하고 추진하는 동시에, 생사존폐가 걸린 치열한 경쟁도 감안하여 철저한 대응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부록

<부록 1>

참 고 문 헌

문용: 중국의료산업집단구상, 베이징의과대학교, 2003.

베이징의과대학교 : 중국의료산업발전국제회의 논문집, 2004.

왕지평 외: 현대병원관리개요, 인민군의출판사, 2003 전국 위생통계연보자료, 위생부, 2001, 2002, 2003.

위생부(중국), 중국위생통계제요, 2001, 2002, 2003.

위생부(중국), 중외 합자/합작 의료기구 관리 잠정안, 2001.

전신충 외: 중국의학백화전서(사회의학 및 위생관리학), 과학기술출판사, 1994.

중국위생년감 편집위원회, 중국위생년감, 인민위생출판사, 2001, 2002, 2003.

진해봉 외: 중국위생보건, 인민위생출판사, 1985.

팽서충 외: 중국위생사업관리학, 길림과학기술출판사, 1988.

<http://www.chinaccm.com>, 중국의료산업투자분석보고, 2004.

<부록 2>

설 립 방 법

□ 설립 의향서/계약서 작성

위치, 명칭, 취급종목, 규모, 투자 비율(지분), 의사결정권, 역할 분담, 이익배분 및 기타 각 지역 정부 기관 요구 사항을 골자로 하는 설립 의향서/계약서를 작성한다.

□ 운영시스템 관련 문서 작성

의료서비스(진료종목), 부대시설(약국, 실험실 등), 의료진 배정, 행정관리(인력 관리, 의료보험사 제휴 등 행정 조치), 기타 (핵심 인원 구축: 협정서 후 합작 쌍방 부속병원에서 공동 평가 선발 교육) 등 내용을 골자로 한 운영시스템 관련 문서를 작성한다.

□ 설립 절차 및 구비 서류

○ 법인등록

가. 위생부 허가

- 병원 예정 소재지 市級 위생행정부서에 1차 설립 신청 서류 접수(심사 기간: ?, 최소 1년)

- 병원 예정 소재지 省級 위생행정부서에 1차 심사결과 및 2차 설립 신청 서류 제출(심사 기간: ?, 최소 6개월)
- 중국 위생부에 2차 심사결과 및 최종 설립 신청 서류 제출(심사 기간: 실제업무일 45일 이내로 설립 허가 여부 판정)

나. 대외경제무역부 허가

- 위생부 설립 허가 취득 후, 대외경제무역부에 서류 접수(심사 기간: 실제업무일 45일 이내로 설립 허가 여부 판정)
- 설립 가능 판정 시, 서면 통보 및 '외국투자기업비준증서' 발급

다. 공상국 등기

- '외국투자기업비준증서' 발급 1개월 내로 공상국 법인등록 신청
- 법인등록 후속 사항 준비

라. 법인등록 후속 진행 사항(소요시간: 11주-20주)

- 공안국 등기
- 법인도장제작 신청(법인명도장, 병원일반도장, 회계전용도장, 계약전용도장, 해관전용도장 등)
- 기업일련번호증 신청(기술감독국)
- 외화관리국등기
- 법인은행구좌개설
- 국가세무국 등기
- 지방세무국 등기
- 통계국등기
- 기업자산 책정(책정 수수료 별도 규정)
- 해관 등기
- 재정국 등기
- 소재 구역 공상국 등기
- 노동국 등기
- 기타 추가 요구 서류

○ 구비 서류

- 한-중 합자/합작의향서
- 합자/합작 항목 건의서

- 실행가능연구보고(설립배경, 시장분석, 수익예산 등 포함)
- 한-중 양 회사(병원)의 법인등록증 사본. 개인업자의 경우, 신분증명서 제공. 중국 측 투자자의 경우, 발급기관의 확인도장이 있는 법인등록증 사본 제공.
- 한국 측 회사의 주거래은행 신용증명서 원본. 신용증명 내용 중, 자금거래 신용 관련 내용이 있어야 하며, 해당 은행담당자의 싸인 필요. 중국 측 회사의 경우, 상급 재무 담당부서 발급 자금증명 또는 주거래은행 신용증명 원본 제출. 중국 측 회사가 유한 책임공사의 경우, 회계사사무소 발급 최근 자산증명서(원본) 제출.
- 계약서 및 정관 규정
- 한국 측 이사장/총지배인 서명 발급한 합자/합작 병원 이사진 임명서 원본
- 이사진 이력서. 학력, 경력, 신분 증명 등 포함. 한국 측 이사진의 경우, 여권 사본 추가 제출
- 합자/합작 병원 장소 임대계약서 사본, 계약 기간 최단 1년.
- 병원 설립 신청서
- 기타 추가 요구 서류

□ 설립 추진 방식

- 자체 추진
 - 주재원 중국 현지 파견
 - 단, 소요 시간 상대적으로 길 수 있음
 - 주재원 관련 현지 비용 발생
 - 정부납부 각종 수수료 별도
- 중국 현지 대행업체 위탁 추진
 - 소요 시간 상대적으로 단축 가능
 - 단, 대행료 발생(합자계약서 투자 금액의 약 3 정도)
 - 정부납부 각종 수수료 별도

<부록 3> **중국-외국 합자/합작투자병원 관련 법령**

- 1) 中外合資/合作醫療機構管理暫行方法
- 2) 醫療機構管理條例
- 3) 醫療機構基本標準

- 4) 中華人民共和國中外合資經營企業法
- 5) 中華人民共和國中外合資經營企業法實施條例
- 6) 中華人民共和國中外合作經營企業法
- 7) 中華人民共和國中外合作經營企業法實施細則
- 8) 中外合作經營企業合營各方出資的若干規定
- 9) 中外合作經營企業合營期限暫定規定
- 10) 中華人民共和國外匯管理條例
- 11) 外商投資企業勞動管理規定
- 12) 中華人民共和國海關法
- 13) 中華人民共和國會計法
- 14) 中華人民共和國外商投資企業和外國企業所得稅法
- 15) 中華人民共和國外商投資企業和外國企業所得稅法實施細則
- 16) 中華人民共和國投資企業法
- 17) 中華人民共和國投資企業法實施細則
- 18) 關於設立外商投資股分有限公司若干問題的暫定規定
- 19) 關於外商投資舉辦投資性公司的暫定規定
- 20) 北京市關於鼓勵外商投資高新技術產業的若干規定
- 21) 指導外商投資方向暫行規定
- 22) 外商投資產業指導目錄
- 23) 當前國家重點鼓勵發展的產業產品和技術目錄
- 24) 中華人民共和國公司法
- 25) 中華人民共和國合同法
- 26) 中華人民共和國仲裁法